

“전주 YMCA 100주년, 기도의 응답... 시민들의 헌신이 만들어”

김종기 전 이사장

“전주YMCA 100주년은 결코 한 사람의 힘으로 이뤄진 행사가 아닙니다. 수많은 회원과 시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 분들이 함께 만들어낸 감동의 역사입니다.”

지난 4월 임기를 마친 김종기 전 전주YMCA 이사장은 100주년 기념 사업을 돌아보며 가장 먼저 감사라는 단어를 꺼냈다.

1925년 설립된 전주YMCA는 지난 100년 동안 농촌 계몽 운동, 문맹 퇴치 운동, 민주 시민교육과 청소년 운동, 환경운동, 통일운동 등 전북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해 열린 100주년 기념행사는 전주YMCA가 걸어온 역사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김 전 이사장은 “행사를 마치고 나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전주YMCA의 역사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소중한가라는 점이었다”며 “선배들이 남긴 정신과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이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사장을 마치고 지난 전주 YMCA 100주년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특별한 신앙 체험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행사를 10여 일 앞두고 있었습니다. 책임감과 부담감이 적지 않았습니. 어느 날 새벽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 제 다리를 흔들며 깨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깨운 줄 알고 일어났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 전 이사장은 매일 새벽 YMCA 건물에 마련된 기도실을 찾았다. 올해 조성된 시민 소통 공간 ‘평



화길 카페’ 옆 작은 기도실에서 그는 100주년 행사를 위해 온 힘을 다해 간절히 기도했다. “새벽마다 기도실에 나가 행사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실제로 100주년 기념행사는 전국 YMCA 관계자들과 시민들의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행사 후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YMCA 이사장과 사무총장들은 물론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평가가 이어졌다.

그러나 김 전 이사장은 공을 자신에게 돌리기를 한사코 사양했다.

“시민 운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은 한 사람이 이끌 수 있지만 시민 운동은 수많은 사람의 뜻과 헌신이 모여야 가능합니다. 저는 그저 함께 걸어가는 사람 중 한 명이었을 뿐입니다.”

실제로 전주YMCA의 힘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서 나온다. 현재 약 1,300명의 후원회원이 매월 5천 원에서 1만 원의 소액의 후원금을 내며 YMCA 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

100주년 기념 사업 역시 특정인의 거액 후원이 아닌 회원들의 십시일반 참여를 통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약 3억 원에 가까운 기금이 마련됐고, YMCA 건물 1층에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평화길 카페’가 조성됐다.

김 전 이사장은 “비록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할 정도의 재정은 아니었지만, 시민들의 정성이 모여 새로운 공간을 만들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건물을 지역사회를 위한 열린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20년 가까이 YMCA 활동에 참여해 온 그는 다른 분들은 한 차례하기도 힘든 이사장을 두 차례나 이사장을 맡아 조직을 이끌었고 100주년 행사를 이끌었고 도민들의 뇌리에 깊은 인상을 남긴 행사로 치러졌다. 이제 후임 이사장은 신희고 교장 출신인 조재승 신임 이사장이 이어받아 더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었다.

김 전 이사장은 “전주 YMCA의 100주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라며 “전주YMCA가 앞으로도 믿음과 섬김, 나눔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희망이 되어 평화운동과 시민 운동의 중심 역할을 잘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터뷰를 마친 뒤에도 그는 자신의 공로보다 함께한 사람들에 대한 감사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전주 중화산동에서 조그만 슈퍼마켓인 ‘유명마트’를 운영하며 20여 명의 직원들과 함께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질 좋은 물품을 싸게 팔고자 발품을 팔아지며 물건을 사 오기 위해 새벽집을 출이며 애쓰는 유봉업체 사장인 김종기 대표는 바쁜 틈에도 시민운동가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100년의 역사를 품은 전주YMCA. 그 역사 속에는 이름 없이 헌신한 수많은 시민의 땀과 기도 그리고 그들을 하나로 모은 공동체 정신이 살아 숨 쉬고 있었다.

/오만호 기자

허성수 신임 김제경찰서장 취임

김제경찰서는 지난 8일 경찰서장 직무실에서 허성수 신임 서장의 취임식을 겸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허성수 신임 서장이 김제시 순동에 위치한 군경모지 참배를 시작으로 각 과장 및 계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직무실에서 간담회를 진행한 후 각 부서 사무실을 방문하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순서로 이어졌다.

허성수 신임 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전임 박승준 서장님께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며, “앞으로 김제경찰은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호 존중 하의 소통의 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며, 상식이 통하고 실용이 승수는 합리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백형석 신임 임실서장, 치안현장 방문 격려

제7대 백형석 신임 임실경찰서장이 부임과 동시에 발빠른 현장 행보를 펼치며, 군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치안 현장에 따뜻한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백형석 서장은 10일 오수지구대를 시작으로 관내 전 지역 경찰 관서를 차례로 방문하며 지역 치안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과 소통하는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백형석 서장은 각 지역의 치안 현안을 세밀하고 살피는 한편, 밤낮을 가리지 않고 민생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현장 근무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애로사항을 귀담아 들으며 격려와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보이는 경찰활동’을 강화하여, 주민 접촉 순찰 활동을 통한 보이시피시 피해 예방 홍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선제적인 현안 관련 치안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는 ‘수호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임실=전종영 기자



신장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준공식

군산시 서수면 신장마을 일원에서 지난 9일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통해 조성된 노후실업관 준공식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신장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권순욱)가 군산시 및 농어촌공사와 협력하여 주최했으며, 군산시 관계자와 농어촌공사, 시의원, 지역 주민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행사와 기념식 순으로 진행됐다. /군산=김만호 기자



동진 농어촌공, 금평저수지 일원서 환경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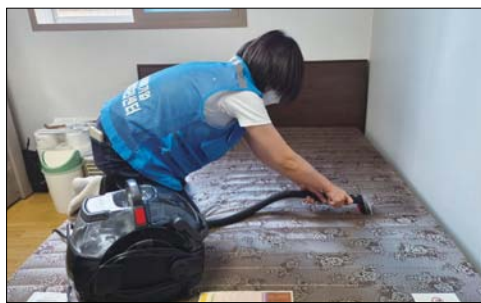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지사장 고광돈)는 지난 9일 오전 10시부터 김제시 및 마을주민, 해병전우회(김제)와 합동으로 금평저수지 일원에서 직접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김제시와 전주시 시민들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이자 관광명소인 금평저수지를 쾌적한 환경으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동진지사 직원들과 유관기관 직원들 그리고 마을 주민이 직접 환경 정화활동에 참여해 저수지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김제=곽노태 기자

결론

▲배정환(배움덕·최미아 씨 아들)·군·노환희(친절봉사회 부회장 노규동·김선숙 씨 딸)은 일사: 13일 오전 11시, 장소: 전주 전동성당



남원시, 저소득 거동불편가구 매트리스 청소지원

남원시는 저소득 거동 불편 가구의 위생 수준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 10일부터 30일까지 저소득 거동 불편 가구 매트리스 청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침대 매트리스에 서식하는 세균과 진드기, 곰팡이 등 각종 유해 물질을 제거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남원시 지정 기탁금을 활용에 추진되며, 관내 저소득 거동 불편 가구 125세대를 대상으로 전문 청소업체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매트리스 청소와 소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남원시는 지난해에도 취약계층 200가구를 대상으로 같은 사업을 추진해 높은 만족도를 얻은 바 있으며, 올해 역시 매트리스 청소 지원을 통해 건강한 생활 여건 조성에 힘을 보태고, 방문 과정에서 대상자의 안부를 살피고 생활 실태를 확인함으로써 사회적 고립 예방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도 이바지할 전망이다.

한 어르신은 “혼자 생활하다 보니 이런 도움을 받기 어려웠는데 세심하게 챙겨주는 복지서비스가 큰 힘이 된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동부노인복지관, 문화체험 힐링나들이 진행

남원동부노인복지관은 최근 복지관 이용 어르신 20명과 전담의 픽업 차유출에서 문화체험 힐링나들이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연 속 산림치유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활력을 높이고자 마련, 일정은 △순길 오감산책 △소도구를 활용한 테라피 활동 △싱글명 명상 △체력 소감 나눔으로 구성됐다.

어르신들은 숲길을 걸으며 자연을 오감으로 느끼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심신의 안정을 찾았으며, 테라피 프로그램을 통해 신체 기능 향상과 활력 증진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나들이는 자연 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며 참여 어르신들 간의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높이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남원=김기두 기자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사전 대비만이 최선”

농어촌공 새만금산단사업단, 산단 현장점검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단사업단(단장 박승수)이 다가오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강풍 등 풍수해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9일, 본격적인 산업단지 현장 점검에 나섰다.

박승수 사업단장은 새만금국가산업단지 내 주요 건설현장 및 분양단지 주변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풍수해 대비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호우와 강한 태풍의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산업단지 내 발생할 수 있는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근로자들의 안전한 작업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건설현장 안전관리 △분양단지 배수 시설 및 상화실 가동 준비 상태 등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우선 건설현장에서는 빗물로 인한 지반 약화가 우려되는 굴착면 주변의 안전조치와 사면 붕괴 예방조치를 집중 점검하였으며, 가배수로와 침사지 등 배수시설의 정비 상태를 확인하고, 지반 침하로 인한 건설기계의 전도·전락 방지 조치를 점검했다. 또한 현장 내 안전시설물 설치 상태와 함께 PMP호브 등 강풍에 취약한 시설물의 사전 결속 조치 여부도 함께 살폈다.

아울러 이미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분양단지 주변에 대한



선제적 방재 조치도 확인했다. 입주기업 인근 도로의 빗물받이 청소 상태 및 산업단지에서 새만금으로 이어지는 주요 배수로의 통수 능력을 점검했으며 특히,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현장 내 ‘재난안전 상황실’의 상시 가동 준비 상태를 살폈다.

박승수 단장은 “풍수해 등 자연재해는 철저한 사전 대비만이 최선의 방책”이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경미한 취약 요인이라도 즉시 시정 조치하고, 철저한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 체계를 유지하여 입주기업과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전주 중앙아파트 어르신 여가·건강 증진

전은, JB어르신 문화센터 제24호 개소

전북은행이 전주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생활과 복지 향상을 위해 JB어르신 문화센터 제24호를 조성했다. JB금융그룹 계열사인 전북은행은 10일 중앙아파트경로당에서 JB어르신 문화센터 제24호 오픈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1987년 준공된 중앙아파트는 시설 노후화가 진행될 데다 고령층 거주 비율이 높지만, 기존 경로당 공간이 협소해 어르신들의 운동과 여가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중앙동 주민센터가 보다 넓고 쾌적한 공간 마련을 위해 사업을 신청했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전북은행은 경로당 맞은편의 미활용 공간을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운동과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70여 명의 경로당 회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증진 활동과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향란 중앙동장과 조인성 전북은행 부행장 오은석 전주시청지점장 등이 참석해 문화센터 개소를 축하했다.

조인성 부행장은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운동·여가시설이 마련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와 복지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이 다양한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 실천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외식업중앙회 남원지부 등, 전남 완도 선진지 견학

남원시는 지난 9일, 한국외식업중앙회 남원지부 임직원 및 모범음식점 영업주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라남도 완도군 음식문화특화거리 및 우수 음식점을 방문하는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견학은 남원시 외식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모범음식점 영업주의 서비스 및 위생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 참가자들은 완도 음식문화특화거리의 지역 우수 음식점을 방문하여 상차림 구성, 고객 응대 서비스 위생관리 체계 등 음식문화 선진화 사례를 학습했다.

특히 영업주 간 정보교류와 소통의 시간을 통해 급변하는 외식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친절서비스 향상과 위생 수준 제고, 지역 특색을 살린 메뉴 개발 등 남원시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남원=김기두 기자